

로버트 야브러 박사, 요한서, 3 장 - 요한 3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

로버트 야브러 박사님의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 강의입니다. 이번 세션은 세 번째, "요한삼서, 믿음직한 친구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 서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를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균형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두 차례 강의를 통해 제가 생각하는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삼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한삼서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모입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한삼서를 살펴보면, 요한삼서가 기독교 정경, 즉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일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한삼서처럼 작은 책을 통해 성경 전체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와 간결함 때문에 읽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는 이 작은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 PMEEC, PMEEC라는 글자로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복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측면에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 사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바로 그 복음의 실현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서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삼서는 바로 그런 점에서 발견됩니다. 요한삼서는 여러 서신 중 하나로, 이 서신들을 함께 살펴보면 복음서가 어떻게 살아 숨 쉬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만 있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로마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하지만 서신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발생했던 몇 가지 문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도시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도 지도자 들이나 사도 지도자들의 동료들이 복음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복음이 어떻게 실천되고, 받아들여지고, 반대에 부딪혔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들은 매우 중요하며, 요한삼서는 그러한 서신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1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미래에 그리고 영원토록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약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시험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다소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은 요한삼서조차도, 그 말씀은 흠이 없으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의를 계속하면서 잠시 기도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완전함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말씀이고, 당신은 완전하시며, 당신의 모든 길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헌신할 때, 당신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요한삼서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겠습니다.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영어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F로 시작하거나 두 단계 모두 F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관찰하세요. 그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세요.

누군가 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썼죠.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누구였을지, 언제였을지, 어떤 상황이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본문을 읽고, 그 아래에 제가 본 것 같은 내용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보고, 관찰합니다. 그런 다음 그 당시의 결론에 충실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여기를 위해 .

모든 결론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요. 요한삼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몇 가지 관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요한삼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인사하는 부분과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가이오는 좋은 사람이었고, 요한은 그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은 그에 대해 몇 가지 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의 마지막 조언과 칭찬이 이어지고, 그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먼저, 인사말입니다. 화면에는 노란색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장로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는 그냥 흘려보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필자가 받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모든 일을 잘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 진리를 증거하였을 때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참으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느니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 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가 본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관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 이 글의 저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는데, 이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적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을 동료 장로라고 부르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자신을 동료 장로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장로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사도들은 스스로를 장로나 교회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한이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실을 큰 자랑으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지위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분명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 수도 있었지만, 장로라는 칭호를 통해 교회 안의 사람들 중 하나로 자신을 꼽을 뿐입니다. 둘째로, 그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말하며, 또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라고 말하며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일깨워 줍니다. 사랑과 기도가 신자들의 명함, 사랑과 기도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의미 있는 기도 생활을 하거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다지 사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시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아가페의 힘의 장(force field)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는데, 요한삼서를 읽으면 매우 얇고 방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요한삼서에서 저자와 그의 서신 수신자 사이의 관계적 연결망을 눈여겨보세요. 분명히 그들은 역사가 있고, 서로를 좋아하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과 함께하는 것이며, 단순히 따뜻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정을 두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그들의 아버지로 알고, 이것이 그들에게 자녀, 즉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언어의 깊이가 있는데, 간과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반복 때문에 어색할 정도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반복적인 문체로 썼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모국어가 다른 언어였기 때문인지, 그가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그리스어로 썼기 때문인지, 어쩌면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그에게 더 모국어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언어 능력이 예전만큼 뛰어나지 않고, 단어 선택도 젊었을 때처럼 다양하지 않다고 수년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르지만, 저는 그가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의 삶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이 잘되고 영혼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에게는 전체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안녕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의 건강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건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25년이나 30년이었고, 현대 의학이나 응급 의료 기술자, 응급 치료 시설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몇 년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훨씬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모두 기뻐합니다. 이는 마치 기독교 복음의 가장 높은 이상 중 하나가 건강을 얻고 치유를 베푸는 것인 양, 육체적 건강에 대한 복음을 세울 근거가 전혀 아닙니다. 이 구절을 기반으로 여러 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면 건강이 좋아지고, 그리스도를 모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을 베풀 수 있다는 지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구절이 다른 복음의 특징, 즉 다른 신자들의 성실함을 기뻐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당신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증거했을 때, 당신은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 가이오를 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네, 가이오를 알아요."라고 대답했고, 요한은 가이오가 그리스도께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의 의미에 순응하는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좀 특이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하는데, '지극히'는 여기서 '크게'로 번역됩니다. "당신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번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랑과 기도는 명함과 같지만, 경건한 자기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잘 풀린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상황이 잘 풀린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은 다른 사람을 기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맡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편지에서 우리가 보는 관계의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인사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그는 믿는 자들을 내 자녀라고 부릅니다. 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 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경건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경건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의학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를 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양육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충실한 제자 양육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꼭 목사나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요한의 후기 생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오래 충실할수록, 더 큰 충실함을 찾기 위해 신앙생활 초기에 열어두었던 단계들에 더욱 감사하게 된다는 신실함의 유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실함은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 안에서 어릴수록 믿음에 대한 확신과 확신이 약해지고,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더 커집니다. 제 삶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점점 더 큰 기쁨을, 심지어 그분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교회에 가야 할까요?"라고 자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음, 하이킹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교회에 가면 이런 것도 못 하겠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랄수록 교회를 포함한 여러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나아졌고, 결혼 생활도 좋아졌으며, 영혼도 더 좋아졌습니다. 존은 여기서 가이오의 건강과 그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존이 충만한 삶의 비결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이미 나이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나이 드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유산을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지내거나 충실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10년마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어렸을 때 조부모님이 사시는 농장에 보내졌던 때가 생각납니다. 조부모님은 아주 가난한 농부셨죠. 할아버지는 말 두 마리를 키우시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트랙터를 살 만큼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실내 배관도 없었고요. 제게는 마치 캠핑 여행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다녔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셨어요.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할아버지께서 칼을 옆에 두고 앞줄에 서 계셨고, 성가대는 열 명 정도였어요.

그는 가난뱅이 농부의 상징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이끌었고, 그의 손은 온통 관절염에 시달렸습니다. 손은 컸지만 온통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절을 짜면서도 노래를 이끌었습니다. 합창단이 해산되면 모두 자리로 돌아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은 그 전날보다 더 달콤합니다"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분을 알아가네요" 같은 가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며,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그 어느 날보다 달콤합니다.

할아버지는 60대였는데, 제 눈에는 마치 80대 같았어요. 아마 800살이나 900살쯤 되셨을 거예요. 지금 저는 71살인데, 그때처럼 그렇게 늙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가짜 노래 같았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60대가 되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그 전날보다 더 달콤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장례식도 치렀고, 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소망과 기쁨이 더욱 달콤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유산의 일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충실한 제자도의 유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제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 일부이긴 하지만, 수업 없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본보기를 통해 가르칠 수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경험하도록 돕는 우리의 몸짓을 통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인사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가이오에 대한 칭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며, 그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낯선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 형제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신실한 일입니다. 요한이 있는 곳마다 찾아와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증언한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들입니다. 가이오가 그들을 맞아들여 후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보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프로 펴뎜포(propempeo) 입니다 .
 펴뎜포(Pempeo) , 즉 '내가 보낸다'는 '프로(pro)'는 '앞서' 또는 '앞서'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 단어는 전문 용어라고 부르겠지만,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파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돈이나 음식, 그리고 그들의 소명에 필요한 다른 필요한 것들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 이름을 위해 나갔으며,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위해 선교 사업을 나가는 사람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순회하는 복음의 종들, 즉 복음 사역을 위해 여러 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요한이 있는 곳과 가이오가 있는 곳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이오에게 돌아갈 것이고, 요한은 그들을 칭찬하며 가이오에게 그들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명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라들이 번역되고, 민족들이 번역됩니다 . 모두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사명이며, 우리 모두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는 없지만, 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가는 등, 우리 모두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이오의 이 칭찬은 사실상 선교사에게 주는 칭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을 위해 나아갑니다 .

그는 그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 만큼 그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기꾼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사역에서 누구를 지원할지 신중하게 선택 해야 합니다 . TV에 나가 여러 채널을 시청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짓을 저지르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할 수도 있고, 다소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옳은 이유로 나선 옳은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3절을 “디오드레베를 대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내가 교회에 뭔가 썼다고 말합니다.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이서만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어딘가 교회에 쓰여졌으니까요. 아니면 요한일서만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올바른 길로 돌아가거나 올바른 길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우선시 하는 디오드레베 는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여기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려는 사람들도 막아서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알고 싶네. 하지만 악당이 있다는 건 분명해. 특히 원문의 표현을 보면, 먼저 나서는 걸 좋아하는 놈이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들을 디오드레베라고 부르죠.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대명사 'auton' 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디오드레베인 거죠.

제일 좋아하는 애 였죠. 야구에서 클린업 타자라고 하죠. 헤비급 선수죠.

그는 이 집단이 정말 밀어붙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의 권위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적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는 복음을 외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돈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종종 어떤 도움이나 자원이 있습니다.

외부 에서 사람들이 파견되었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자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나눠주거나 약을 구했을 수도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이나 세계 어딘가에 생산적인 경제가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와 그 축복의 물질적인 부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바뀌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물질적인 부분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제 탓만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좋은 일을 하는 구호 기관이나 단체에 참여할 방법이 있다면, 왜 가입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똑똑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게요"라고 말할지도 모르니까요.

여기 언어를 잘 아시는 분이시면 저희 사역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떻게든 회중 생활에 끼어들어 회중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그는 그들의 옹호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띄는 걸 좋아해요. 개네들은 눈에 띄는 걸 좋아해요. 있잖아요, 조금만 바뀌주면 돼요.

그들은 권력을 사랑하고, 영향력을 사랑합니다. 디오드레베.

그리고 어쩌면 그는 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는 리더십에 재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는 훌륭한 연설가였을지도 몰라요.

온갖 방식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이습니다. 그들은 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 왔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데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회중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회원 제도에서, 회원이 되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회는 종종 어떤 종류의 교리적 선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집단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교리적 선언이 있는 겁니다. 그 환경에는 핵심 리더십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그 교리적 선언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참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고, 사람들이 불규칙적인 삶을 살 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을 바로잡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가서 그가 있는 곳에서 풀려나면 그가 하는 일을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 일은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가 가진 영향력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상대로 악랄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언급해야겠어요. 게다가, 그것만으로 는 충분 하지 않아요 .

그는 형제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적 메시지와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들을 막고, 그들을 환영하려는 사람들을 막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괴하고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초기 교회가 순수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작은 글씨와 서신들을 읽어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훈련받은 자들의 코앞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축복하시는 사람들을 뻔뻔스럽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반응은 실로 예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적 권위에 대한 경쟁자들은 주교적 사명을 방해합니다. 제가 말하는 주교적 사명이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 도미누스(dominus), 즉 주님을 뜻하며, 그리스어로는 퀴리오스(kurios)입니다 .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요한과 요한 가이오, 그리고 그곳 교회들은 우리 주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며 제자를 삼는 평생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과 디오드레베 사이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존은 그냥 잘 지낼 수 없었을까요? 왜 존은 더 사랑스럽고 관대하지 않았을까요? 왜 존은 더 차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지난 한두 세대 동안 이 책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여러 주석을 읽어봤는데 , 많은 현대 학자들은 "존이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존은 악당이 됩니다. 존은 연약하고 자만심이 강한 종교적 인물이고, 디오드레베는 유쾌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사랑과 좋은 감정만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존은 불을 낮추고 비난을 피붓고, 결국 끼어들 거예요. 존처럼 굴지 마세요.

디오드레베처럼, 그냥, 편하게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존은 우리가 신학적 주제,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의 권위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을 포함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강의에서 이미 보았던 것들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요한삼서의 마지막 부분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세대의 교회 생활의 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사도적 권위에 대한 경쟁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이 두 구절, 결론적인 권고와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지 못했습니다.

좋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증거를 덧붙이고, 여러분은 우리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석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데메드리오가 이 편지를, 어쩌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가 담긴 소포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 데메드리오는 우리에게는 뜬금없이 나타나는 인물이지만, 만약 그가 편지나 편지 봉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이오에게 건네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데메드리오를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확실히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칭찬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진리 그 자체로부터 좋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덧붙입니다. 당신도 우리의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 교회가 위태로운 곳, 디오드레베 때문에 위태로운 곳에서, 요한은 유배지에서 이 글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여기저기서 교회가 억압받던 시대였습니다. 항상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교회에서 스파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그들은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신뢰했지만, 결국 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 해야 할지 서로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 내 말을 믿으시오. 데메드리오를 믿으시오.”

방금 읽은 말씀에서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본받는지 주의하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 11절의 배치를 보면 디오드레베가 악한 존재의 본보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이우스,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용납하고, 누구를 용납하는지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는 이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정말,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워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더십이 뛰어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진정한 삶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제가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간증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독교계에서는 종종 간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지,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느 교회에 다녔는가? 유아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가? 성경학교를 인도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증언은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말이나, 죄송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대단한 주장을 하면서 자만심만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아내나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빠는 교회에서는 잘생기셨지만, 사실 집에서는 썩 좋은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데메트리우스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라고 했죠 .

그리고 진리 그 자체로부터 말입니다. 이는 그의 삶이 복음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인격에 부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도 우리의 간증을 덧붙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증을 생각할 때, 단순히 마이크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데 그치지 마세요. 진정한 시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종종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항상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간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경건함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나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에 대해 들어야 할 말을 해줄 경건한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이 작별 인사를 합니다.

너에게 쓸 말이 많았지만, 펜과 잉크로 쓰고 싶지 않았어. 곧 만나 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

친구들이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요한이 있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이오가 있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친구들에게도 인사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합니다. 두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 첫째, 신약 서신은 더 큰 진리와 관심사에 대한 읽기 쉬운 편차를 보여줍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래 너희에게 일반 구원에 관하여 쓰려 하였으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기 위하여 쓰게 되었노라." 따라서 모든 신약 서신은 시간이나 공간이 없는 더 큰 배경을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손으로 쓴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시대 말엽에 책 형태로 기록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세기에 코덱스라고 불렀던 것이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초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었고, 누군가가 받아쉴 시간도 한정되어 있었으며, 누군가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낼 능력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쉴 말이 많지만, 아직 말하지도 않을 거야. 곧 만나 뵈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그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나누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이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봅니다. 이는 애정을 담은 단어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접하면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의미입니다.

평화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구약의 샬롬이 함께하기를.

스타워즈 영화처럼 ‘포스가 함께하길’이 아니라,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복음 메시지는 공동의 목표 의식을 심어줍니다.

미국에는 ‘프렌즈’라는 오래된 영화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관계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 공동체에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향으로, 그들은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 임재는 여러 가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대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메일을 받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은 오늘날 전 세계 특히 젊은 세대를 괴롭히는 문제, 즉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불안과 외로움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사람들이 전자 기기를 통해 더 많이 연결될수록 그들의 영혼은 더욱 황폐해집니다. 심지어 자살과 낙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린 십대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불안과 외로움. 이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임재는 대인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안녕, 친구, 그리고 연결성,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요한삼서라는 매우 풍성한 책을 곧 살펴 보게 되어 죄송합니다 . 다음 강의에서는 요한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버트 야버러 박사님의 요한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에 대한 강의입니다. 세 번째 세션, 요한삼서, "믿음직한 친구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